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 진행순서 ||

- 제1부 -

- 국민의례
- 내빈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 개회사
 -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
- 격려사
 - 내빈

- 제2부 -

- 좌장 :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 ●
- 발제 : “보수의 위기, 보수의 기회”09
 - 고성국 정치평론가
- 토론
 - 김도중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5
 - 최명길 MBC 보도제작국 부국장/〈최명길의 세계는 우리는〉앵커 ..31

축 사



박 희 태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희태입니다.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두언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면서 물가와 실업 등 민생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데 정치권은 기존의 대결적 관행과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원칙이 새삼 소중한 때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여 정치다운 정치를 구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나타난 민심은 정치권의 반성에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과 서민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정치가 되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단히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인식과 실천의 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실 보수 정치의 본질은 현상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개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 정치인의 정체성이자 책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의 위기를 거론합니다만, 이는 바로 보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대변해온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하나로 뭉쳐, 위기의 정치를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힘을 합쳐주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정치에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비상구를 뚫어내는 뜻 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16
국회의장 박 희 태



홍 준 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보수의 자기 혁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여의도연구소 정두언 소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권 밖의 인물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여야의 탁상공론, 당리당락, 대립정치에 반감을 품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보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며, 한나라당이 자기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2011년 현재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참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사회적 책임을 더 묻고, 없는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되 폐쇄는 문화를 없애는 게 참보수의 세상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양보하는 보수가 참보수입니다. 반면 보수가 탐욕만 갖고 자기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 탐욕주의 세상이 됩니다. 해방 이후 지배세력임을 자임한 한국의 보수들은 대부분 탐욕적이고 부패하고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나쁜 보수라 불리는 보수들이 자기 것을 양보하라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착각한 탓입니다.

이제 보수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합니다. 권리와 특권을 추구하기에 앞서 의무 이행을 우선시하고 자기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혁신, 자기 양보입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선진강국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이제 선진강국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은 보수정당 한나라당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한나라당이 역사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참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존의 ‘부자 정당’ ‘웰빙 정당’ ‘특권 정당’의 오명을 과감히 벗고, 깨끗하고 당당한 보수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양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참보수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란 기조 아래, 헌법 119조 2항과 당 정강정책에 근거한 친서민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한나라당은 참보수 정당으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참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충언(忠言)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바랍니다. 토론회 준비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16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 준 표



정 두 언
여의도연구소 소장

비탈에 선 한국의 보수, 희망은 있다.

최근 불어 닥친 안풍(安風)으로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 아니 정치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 안풍은 어디서 온 것인가 말들이 많지만, 정작 안풍의 진원지는 안철수와 그 지지세력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보수세력 그리고 정치권 그 자신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집권기간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이익집단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며 지지층을 실망시켜왔다. 보수세력은 그동안 탐욕스러운 기득권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키운 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왔다. 정치권은 사회문제 및 갈등의 해결과 조정은커녕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집단으로 전락해왔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라는 반사이익에 크게 힘입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거스르는 국정운영을 거듭하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와 흡사한 수준의 민심이반을 겪고 있다. 수년간 미래권력으로서 부동의 지위를 누리며 대세론에 안주해온 박근혜 전대표는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 앞에 구시대 정치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요약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올 것이 오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의 보수는 비탈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비탈에 선 한국의 보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경고음과 옐로카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대표 주자인 한나라당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시중에는 한나라당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는 얘기가 파다한데도 말이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부 여당이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결국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날 것이다.

이 정부 초기부터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을 줄기차게 외쳐온 나는 그동안 술한 오해와 견제 속에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어느 분으로부터 ‘그 친구 조금만 숙이면 한 자리 할텐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나의 신념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뿌린 그 밑알들이 요즘 드디어 하나씩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여당이 진작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한이 있긴 하지만.

나는 비탈에 선 한국의 보수에게 출구는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 출구는 비상구가 될 수밖에 없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서 술한 쇄신의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또 쇄신이야?’ 하는 조롱마저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인식과 사고의 일대 전환과 함께 신속하고 강력한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거의 6.29 선언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가는 제2의 6.29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2의 6.29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민심에 승복을 하고, 그런 후 민심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금융정책, 기업보다는 서민 위주의 환율정책, 대결일변도보다는 대화와 민간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대북정책 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도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에 당운을 거는 한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진세력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발 제

보수의 위기, 보수의 기회

고 성 국 정치평론가

토론

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김도종 명지대 정외과 교수

토론

보수의 위기인가, 정치의 위기인가?

최명길 MBC 보도제작국 부국장/〈최명길의 세계는 우리는〉앵커

